



광주 다문화 가족들 “한가위만 같아라”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서창동 향토문화관에서 열린 ‘서구 다문화가족 추석한마당’ 행사에서 다문화 가족들이 한복입기 체험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전남, 청정 ‘블루 이코노미’로 새 도약

전남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로 새 도약에 나선다. 보존돼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 한전공대 설립을 계기로 몰려드는 인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지금까지 시도한 바 없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광주일보가 2020년을 앞두고 전남도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 천년 비전으로 선포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1>전남의 새로운 도약

민선 7기 출범 후 1년간 전남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만이 가능한’ 미래 전략으로 ‘블루 이코노미’를 제시했다. 그 취지와 배경을 전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12일 선포식에 참석해 ‘전남과 대한민국의 블루잡’이라는 찬사를 보내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 전 지역과 전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특정 지역이나 산업, 분야에 한정돼 있던 기존 프로젝트들과는

### 에너지·투어·바이오·트랜스포트·농수산·시티 6개 프로젝트 전 지역, 전 산업, 전 분야 대상 전남의 미래 이끌 혁신 전략

차원이 다르다.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가능한 기반시설부터 민간 투자가 필연적인 신산업에 이르기까지 공공·민간 영역을 망라하며, 따라서 미치는 영향도 광범위하다. 행정기관, 공기업,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 관련 단체 등이 사업주체로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전반에서 개별 사업까지 협의하고 의견을 모아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역의 특징과 미래 비전을 보다 강조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로 명칭을 정했다. 자연모사를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시스템을 의미하는 벨기에 환경운동가 군터 파울리의 기존 ‘블루 이코노미’에서 공간적인 범위를 전남으로 좁히고, 관련 분야의 범위는 전방위로 확장시켰다. 전남의 섬, 바다, 하늘, 바람 등 풍부한 청정 자원, 유서 깊은 역사·문화자원, 세계적인 인재, 제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최첨단기술을 융복합해 전남의 비상을 이끄는 미래 혁신전략이다. 블루 이코노미에서 블루는 새로운, 혁신, 희망, 진취, 미래 등을 의미한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블루 에너지·블루 투어·블루 바이오·블루 트랜스포트(Transport; 수송, 이동)·블루 농수

산·블루 시티 등 6개 프로젝트로 분류한 전남도는 세부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남도가 자신하고 있는 분야는 ‘블루 에너지(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 전남)’다. 한전공대 설립에 정성을 기울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해상풍력 잠재량, 부생수소 생산량 등을 지닌 전남은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관련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에너지밸리를 조성 중이다. 에너지신산업 선도하면서 에너지 분야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풍력산업 시장진출 및 전남형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기대하고 있다. ‘블루 투어(남해안의 기적, 신성장 관광벨트)’는 아름다운 리아스식 서남해안과 섬·갯벌·습지 등 천혜의 자연자원,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깃들여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그 기반으로 한다.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 서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블루 바이오(바이오·메디컬 허브, 전남)’ 역시 전남이 가지고 있는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 생태계

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국가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 국립신노혈관센터 설립,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바이오메디컬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블루 트랜스포트(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중심, 전남)’는 영광을 중심으로 특화된 e-모빌리티 산업과 고효능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집적한 드론산업의 강점을 살려 전남이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블루 농수산(미래 생명산업의 메카, 전남)’, ‘블루 시티(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취임과 함께 지역 잠재력과 자원을 점검하기 위해 매주 전남 각지를 현지 방문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는 2020년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정부부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연쇄 회담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혁신을 통한 성장 모멘텀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잠재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블루우선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민선 7기 전남의 시도가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추석 명절 ‘밥상 민심’ 잡아라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 유권자에 ‘얼굴 알리기’

내년 4월15일 치러질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선거를 7개월여 남겨두고 찾아온 추석 연휴는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입지자들은 지역구에 각종 추석 인사 플래카드를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관련기사 2·3·4·5·6면>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를 겸하게 될 내년 총선은 여야의 정국 주도권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안정’을 통한 정권 재창출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호남 민심에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정권 심판론’을 민심에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에 의석 수가 많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등은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한 야권발(發) 정계개편

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민심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에서 민주당의 높은 정당 지지율을 현역 프리미엄과 ‘제3지대 신당’으로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18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현역 민주당 후보들이 남채나고 다른 정당 후보들은 현역 의원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는 각 지역구별로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오만한 모습을 보이며 ‘경선 잡음’이 터져나올 경우 지역민심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은 현역 의원 몰락이와 세대교체, 그리고 호남에서 제3지대 신당의 바람이 얼마나 불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하지만, 민주당도 광주·전남 각 지역구에 새로운 인물들이 많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어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추석연휴 광주·전남 고속도로 차량 하루 평균 40만대

올 추석 연휴기간에는 추석 당일인 오는 13일 가장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11~15일)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일평균 40만대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에 비해 귀성일수가 3일에서 2일로 짧아져 교통량이 집중돼 귀향길은 지난 해보다 정체가 크게 증가하고, 귀경길은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귀성 최대 예상소요시간은 서울-광주 7시간 10분, 서울-목포 8시간 30분이다. 귀경 때는 광주-서울 6시간 50분, 목포-서울 7시간 30분이다. 추석 연휴기간 광주로 진입하는 차량은 일평균 10만4000대, 추석 당일인 13만200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가장 혼잡이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추석 특집 지면 안내**

- 광주·전남 총선 누가 뛰나 ▶ 2~6면
- 한가위 문화 나들이·극장가 ▶ 11~12면
- 한가위 경제 특집 ▶ 13~21면
- 정찬주 다큐스셜 ‘광주 아리랑’ ▶ 22면
- 한가위 TV 하이라이트 ▶ 25~27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추석 특집 32면 발행 12~15일자 신문 쉽니다

추석 연휴 날씨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 미래를 꿈꾸는 농업 여성이 바꾸는 세상

2019 국제농업박람회  
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  
2019. 10. 17. (목) ~ 10. 27. (일) [11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소재]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부, RDA 농촌진흥청, 광주광역시, 나주시,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관광공사, KFS 한국농어촌공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 한국도로공사, NH농협

★ 홍보대사 송가인이여라~!